

이승준 02) 2009-7088
leesj@leading.co.kr

22일 뉴욕증시는 고용, 주택 지표들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부진한 분기실적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실적 전망치를 제공하지 않자 경기후퇴 우려의 증폭으로 하락 마감.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105.30p(1.28%) 떨어진 8,122.80에 장을 마감. 15.5% 하락한 씨티그룹을 선두로 24개 종목이 하락 마감.

S&P500 지수는 전일대비 12.7p(1.53%) 하락한 827.50에 마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1.58p(2.76%) 하락한 1,465.49를 기록.

이날 장 초반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베이 등 미국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발표와 경제지표의 악화 영향으로 인하여 급락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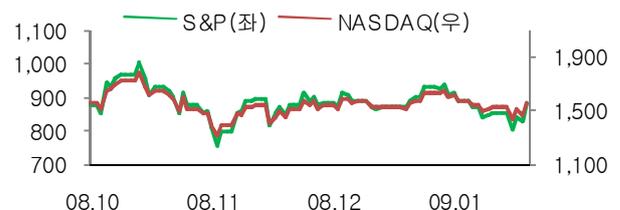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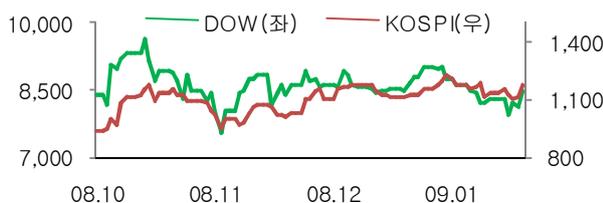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제불확실성을 이유로 실적 전망치를 제공하지 않자 경기침체 불안감이 고조. 증시는 한때 8,000선이 붕괴 되었으나 이후 낙폭을 축소, 8,000선이 지지선임을 재차 확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대비 6만2천명 늘어난 58만9천명을 기록. 전망치인 54만3천명을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2년이래 최대 수치를 경신.

지난 12월 신규주택 착공건수는 연율 55만채를 나타내어 전월대비 15.5% 감소. 주택건설의 선행지표인 12월 건축허가건수도 전월대비 10.7% 줄어들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

미국 시장 주요 지표(pt, %)

지수	종가	1일	5일	10일	1개월	3개월	12개월
DOW(좌)	8,122.80	-1.28	-1.09	-7.09	-3.52	-4.65	-33.80
S&P(좌)	827.50	-1.52	-1.92	-9.04	-4.13	-7.73	-38.18
NASDAQ(우)	1,465.49	-2.76	-3.07	-9.37	-3.68	-9.30	-36.73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